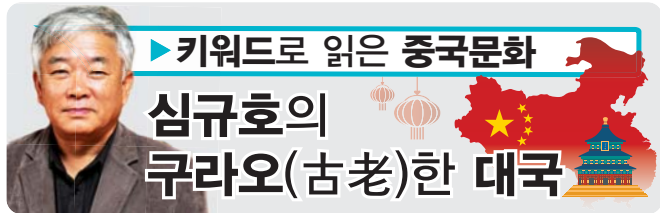


백성이 함포고복했던 시절은... 식위천 말뿐이었나



▶ 키워드로 읽은 중국문화
심규호의
쿠라오(古老)한 대국

26-골. 식위천(食为天)

필자가 양저우에 교환교수로 나가있을 때 잘 가던 음식점이 있었는데, 상호가 바로 '식위천'이었다. 원래 이는 '사기·역생육가열전(麩生陸賈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한말 유방과 항우가 전하를 다투고 있을 때 전제가 기술을 유방이 성고成阜의 동쪽 지역을 항우에게 내주려고 했다. 그러자 모사였던 역이(麩)가 식량 창고인 오창(倉)이 있는 그곳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을 주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식량)을 하늘로 여깁니다(王者以民为天, 而民人以食为天)." 백번 웅은 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자체가 백성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도록 하는 것(은포溫飽) 아니겠는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역대 제왕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그리 할 수 있었을까? 백성이 함포고복했던 때가 고전적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데, 무슨 '식위천'인가? 말만 그러하다. 음식점 이름만 그러하다. 한때 지금은 오히려 지나치게 '식'을 '천'으로 여기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중국음식에 대해 앞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세 가지를 덧붙인다.
넷째, 취찬(聚餐)과 반국(飯局). 취찬이나 반국이나 모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회식이나 연회의 뜻이다. 흥미로운 말은 반국이다. '국'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바둑이나 승판, 또는 바둑이나 장기 한 판 승부 등의 뜻이 있다. 승부에는 판세를 살피는 것이 관건이니 형세란 말이 나오고, 판을 벌이면 공공이나 속수수가 난무하기 마련이니 계약, 올라가라는 뜻이 붙었다. 그렇다면 왜 배에 공공이와 올라가기가 붙은 것일까?

삼국지연의 속 조조와 유비 '반국'에 담긴 올라가 의미는 속셈이 있는 연회 뜻 부각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보면 조조와 유비가 청매실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면서 당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青梅煮酒論英雄)이 나온다.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선주전(先主傳)'에 조조가 유비와 술을 마시면서 천하의 영웅은 나와 그대뿐이라는 말을 흥미진진하게 각색한 내용이다. 유비는 그렇지 않아요 틈을 봐서 조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궁공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웅이라고 하더니, 유비는 놀라 뒷자리를 놓치고 만다. 바로 그때 번개가 치더니 이내 천둥이 울린다. 유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식탁 아래로 몸을 구부려 뒷자리를 잡는다. 조조에게는 놀란 그가 식탁 아래로 숨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들 두 사람이 모인 까닭은 술이나 한 잔 하자는



① 서태후 밥상 ② 흥문연은 싸움인가? 회식인가? ③ 음식이 하늘이라는 이름의 호텔 ④ 뱀과 고양이로 만든 옹호투 ⑤ 흰 닭발로 만든 백운봉조 ⑥ 박쥐 문양과 거꾸로 쓴 북자 ⑦ 스님도 좋아한다는 불도장

것이었지만, 조조는 조조대로 유비는 유비대로 서로 속셈이 달랐다. 얼마 후 관우와 장비가 등장하는데, 할레벌떡 뛰어 들어온 그들을 보고 조조가 말한다. "여기는 흥문연(鴻門宴)이 아니겠는가? 무슨 항장(項莊)과 항백(項伯)이 있겠소. 여보라! 저 두 번과(樊噲)에게도 술을 올려라!" 난세의 간웅이자 황실부시(樞樞)직(전정에서 잠시 차를 놓고 시를 짓는다는 뜻)의 문인 조조의 입에서 나온 '흥문연' 역시 먹기 위한 연회가 아니라 서로 모의를 위한 반국이였다.

밥 한 번 먹자! 흔히 하는 말이다. 그곳에 어떤 궁공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송나라 문사들처럼 '반국'이란 말을 만들어가며 속셈이 있는 연회의 뜻을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이 또한 중국 음식문화의 특색이 아니겠는가?

다섯째, 연년유년(年年有餘)과 백운봉조(白雲鳳爪). 연년유어는 말 그대로 해마다 식량이며 재물이 남아들 정도로 풍요롭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전통적인 길상(吉祥), 기복(祈福)을 바라는 대표적인 말이다. 이와 관련된 그림에는 여지없이 잉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고기가 그려져 있기 마련이다. 이는 '어(魚)'와 '어(魚)'가 똑같이 '유'로 같은 발음에 성조까지 같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해성(諧聲) 글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박쥐 복죽은 복을 나타내는 福자와 해성인 까닭에 박쥐 또한 길상 문양으로 많이 쓰인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딧불이나 개, 심지어 단추까지 박쥐 문양을 즐겨 썼다. 중국 음식점에 가보면 福자가 거꾸로 매달린 장식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거꾸로의 뜻인 도(倒)가 온다는 뜻인 倒와 해성인 까닭에 '복이 왔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어느 민족이든 물고기를 먹지 않았는가? 하지만 물고기를 먹

더라도 이를 해성에 맞춰 나름의 의미와 취미를 부여하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중국인도 물고기 요리가 나오면 위쪽을 다 먹은 다음 뒤집어서 먹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로 뒤집는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꾼다(轉向)고 할 뿐, 길상이 뒤집으면 어찌 되었는가? 행복이 불행이 되지 않겠는가?

길상 문양 등 활용 '박쥐 북' 옹호투 등은 재료 짐작 안돼 광동인의 보양음식 탐구 열정

중국 음식은 주로 3개나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음식 이름에서 재료나 조리법, 재료묘양 등을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워낙 가짓수가 많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이름만 보고 알 수는 없다. 예컨대 백운봉조, 옹호투龍虎鬚, 불도장佛跳牆은 어떤 음식일까? 복건성 북주의 전통 보양음식인 불도장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스님도 그 맛에 반해 담장을 넘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라는 뜻을 아는 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뱀과 고양이를 주제로 삼은 옹호투는 어떤가? 탈색한 흰 닭발로 이루어진 백운봉조는 또 어떤가?

문득 중국 음식은 이름조차 학문과 역사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예를 든 불도장의 원래 이름은 단소팔보(壇燒八寶), 나중에 복락과 수명을 운전하게 갖는다라는 뜻인 복수전(福壽全)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맛본 누군가

가 "항아리 뚜껑을 열면 향기가 사방에 퍼들아 스님조차 향을 맡으면 참선을 포기하고 담장을 넘어온다(壘啓葦香飄四鄰 佛聞棄禪跳牆來)"라는 시를 지은 후로 불도장이란 이름을 달게 되었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여섯째는 약식(藥食)同源이다.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약이 된다는 의미로 음식이 곧 약과 같으니 양자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흔히 약이 되는 음식의 뜻인 약선(藥膳)과 유사하다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전설상의 임금인 신농(神農)이 온갖 약초를 맛보면서 비로소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전설이 있으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약도 먹을 것이니 음식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나라 시절에 나온 '황제내경(素問)太素'는 "빈속에 먹는 것은 식물(食物)이고, 아픈 사람이 먹는 것은 약물이다"라고 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약식(藥食)을 고려하는 데 일각견이 있는 이들은 광동인들이다. 흔히 광동음식을 두고 하늘에 비행기 빠고, 땅에 책상 빠고, 바다에 잠수함 빠고 다 먹는다는 식으로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물론 광동요리는 음식 재료 가운데 혐오감을 주는 것이 적지 않고, 야생동물을 재료로 하여 마치 동물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한 주범처럼 간주되기도 한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광동인들의 보양음식에 대한 치열한 탐구의 결과가 아닐까? 굳이 변명하자면 그렇다는 뜻이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초기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취추바이(瞿秋白)는 1935년 5월 국민당 정부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기 전 '불필요한 말(多餘的話)'이란 장문의 글을 썼다.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중국의 두부(豆腐)도 아주 맛있는 음식, 세계 제일이다. 영원히 안녕!" 이제 필자가 안녕을 고할 때다. 뭐라고 해야 할까? 안녕!
<심규호·제주국제대 석좌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제주 직항 **모두의골프-제주직항** **제주 직항** **제주 직항**

힐링투어: 아리산 삼림욕+머드온천

대만 남부 "가오슝" 4일

11월-12월 매주 화요일 출발

5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5,980적립

★착한패키지★ 오감만족/노쇼핑/노음선

대만 남부 가오슝/타이난 4일

11월-12월 매주 화요일 출발

7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80적립

★착한패키지★ 완전정복/노쇼핑/노음선

대만 남부 가오슝/타이난/컨딩/아리산 5일

11월-12월 매주 금요일 출발

8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8,980적립

피타이 3색골프

태국 파타야 골프 5일 54홀(1인1실)

11월 매일출발 (화요일제외), 12월매일출발

1,190,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11,900적립

★1인실★ 중상급 수준 매일 디른 골프장 18홀*2회/한국인 가이드

태국 파타야 세인트앤드류스 골프리조트 5일(108홀)

11월16부터 매일출발 (화요일제외) 12월-1월 매일출발

999,000원부터

태국인기 No.1 / 최대 54홀 코스 / 한국인직원 상주/ 고객만족도 최고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쇼킹M★ **모제주출발** **모해정복**

상해 완전정복 4일(특급호텔)

11/21, 22, 27, 28

493,2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4,932적립

#제주직항#상해#아강투어#주가가#쇼킹M#특가#4명출발

\$200상당 추천음선 ALL포함

다낭/호이안/후에 5일

11/20, 12/11

1,191,200원

투어마일리지 약 11,912적립

모제주출발, 부산경유무

#국내선포함#부산출발#노음선#인기음선포함#쇼핑2회 [노음선/쇼핑2회/다낭5성동급]

대만 가오슝 골프 4일(5성급/54홀+@)

11/19, 26 12월 매주 화요일출발

1,299,000원부터

골프#54홀#부노스18홀#5성급

투어마일리지 약 12,990적립

대만 가오슝 골프 5일(5성급/72홀+@)

11/22, 29 12월 매주 금요일출발

1,599,000원부터

#제주직항#가오슝#골프 #72홀#부노스27홀#5성급

투어마일리지 약 15,990적립

★4명출발★ 모두DIY

상해/주가가 or 디즈니랜드 5일(특급호텔)

11/21, 22, 27, 28

598,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5,987적립

#상해#노쇼핑 (일정선택제: 주가가 또는 디즈니랜드 선택, 디즈니랜드 선택시 추가요금발생)

스파3종동망포함

다낭+후에+호이안 5일(4성급)

11/20, 12/11

790,200원

투어마일리지 약 7,902적립

모제주출발, 부산경유무 #국내선포함#부산출발#스파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지향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공통사항 - 양복항공권 전일정료(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6-767-0404 (주간) 066-767-0404 (야간) 066-767-0404 (주말) 066-767-0404 (연말) 066-767-0404 (공휴일) 066-767-0404 (특별휴일)